

전남 청소년, 코로나 우울증 2배 늘었다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지난해 22개 시·군 초등생~대학생 5531명 실태조사
청소년 19% '우울감' 답해 ...22% "극단적 선택도 생각"
짜증 47.1% 이어 불안 46.6%... "대처법 모른다" 17.1%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전남지역 청소년들이 코로나 발생 첫해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무기력감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다 20%에 달하는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전남도와 전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2021년 전남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전남지역 청소년들이 2020년 대비 우울함(2020년 9.9% → 2021년 19.0%)을 느낀 비율이 두배 넘게(9.1%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남 청소년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상담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전남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초(1161명)·중(2014명)·고교(1914명)과 대학생(442명) 등 5531명(남학생 2245명·여학생 3286명)을 상대로 대상자 특성,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결과, 코로나 대처현황 등을 조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에서는 짜증(47.1%), 불안·걱정(46.6%)을 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우울함(2020년 9.9%, 2021년 19.0%)을 느낀 비율이 9.1%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코로나로 인한 감정도 변화가 생겼다.

발병 첫해인 2020년에는 불안·걱정을 느낀 청소년비율(50.5%)이 가장 높았고 짜증(43.7%), 두려움(20.1%) 등의 순이었다.

2년째인 올해는 짜증(47.1%)이 가장 높았고 불

안·걱정(46.6%), 화·분노(23.2%), 두려움(22.5%) 등의 순으로 변화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느낀 청소년들이 2020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은 불안·걱정과 짜증 등 부정적인 감정을 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17.1%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려고 함', '가족이나 친구들과 힘든 감정을 나눔' 등을 통해 코로나 스트레스를 이겨낸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전남도 청소년들의 자살행동(사고·계획포함)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가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청소년 중 22%가 한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7.3%는 실제로 자살을 계획하고, 3.5%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1회 이상 자살을 생각하는 '고위기 자살사고 청소년'도 2.5%에 달했으며, 정서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위기 자살 사고 청소년'이 1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전남도 청소년 위기 수준은 일반군 75.78%, 잠재적 위험군21.3% 위험군2.3%, 고위험군0.6%로 확인됐고 2017년부터 잠재적 위험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과 지난해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미란 전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남지역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지원하는 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일 광주시 북구청작업어린이집 원생들이 임인년 범띠해 소망을 적은 메모를 든 채, 방문객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총탄 흔적 조사' 옛 전남도청 일대 통제

내달 28일까지 조사구역 20m 내 감마선 촬영 방사선 노출
1~2월 미검증 525개 중 300여개 조사...나머지 8~10월께

총탄 흔적 조사를 위해 5·18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일대가 통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 총탄 흔적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며 "조사대상 건물인 옛 전남도청 조사구역 20미터 이내의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0월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주변 수목 등을 대상으로 탄흔을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열화상 촬영과 철근 계측 및 탐지, 감마선 촬영 등을 진행했고, 지난해 1월에도 접근통제 후 조사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엠(M)16 탄두 5발과 탄두가 박혀있는 탄흔 5곳 등 총 10발의 탄흔을 찾아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 때 식별한 총 535개의 탄흔 중 미검증된 525개의 탄흔의 1차 전수조사로 300여개의 탄흔 등에서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자 감마선 촬영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지는 본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상무관 등이다.

이후 2차 전수조사는 나머지 건물(도청별관, 경찰국 민원실 등)에서 발견된 200여개의 탄흔에 대해 올해 하반기인 8~10월께 진행된다. 탄흔으로 판정된 탄흔은 보존처리 등을 거쳐 추후 국민

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이와는 별개로 추가로 확보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토대로 추가 탄흔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방법은 감마선 조사로 흑시 모를 방사능 노출 등 안전성을 위해 조사 구역을 통제하기로 했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는 전면 통제되고,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 진입 출입구 등은 조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두 번의 감마선 촬영 등을 통해 명확하게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 식별한 탄흔은 5·18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기념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된다"면서 "안전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직원이 1880억원 횡령" 오스팀임플란트 거래 정지

임플란트 업체 오스팀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이다. 오스팀임플란

트 자기자본 2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오스팀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스팀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팀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연합뉴스

광주이스포츠교육원 '게이머 양성 과정' 본격화

7일까지 '리그오브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교육생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아시아스포츠교육플랫폼지원사업'으로 개설돼 호남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이스포츠교육원이 새해 첫 게이머 양성과정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 정보문화센터 3층에서 개원식을 가진 광주이스포츠교육원은 오는 7일까지 '리그오브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게이밍 과정'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 뒤, 0일부터 28일까지 기초반·실전반·집중 훈련반·프로 준비반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프로게이머 희망 학생들을 위해 프로 준비반을 신설해 집중훈련반과 함께 청소년들의 개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집중 훈련과 전문 코치

의 스크립 경기운영, 피드백을 통해 개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프로준비반(총 40시간)은 매주 월-금 오후 2시~5시까지 운영되며 리그오브레전드는 선착순 최대 5명, 배틀그라운드 선착순 최대 4명을 모집한다. 집중 훈련반(총 30시간)은 매주 월-금 오후 2시~5시까지 '리그오브레전드' 종목만 운영하며 최대 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이스포츠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며, 전문 코치진의 상시 상담 체계를 통해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게이밍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